

일본 내 문화재 환수 갈길 멀다

혜문 스님 반환 촉구에 日 “부당반출 아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 혜문 스님은 8월 30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제기했다.

혜문 스님은 일본을 방문해 도쿄박물관 운영자인 일본 국립문화재기구가 소장 중인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34점의 보관 증단을 요청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문화재로, 1000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한일문화협약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로 문화재 1431점, 2011년 조선왕실의궤 등을 반환했다. 하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한국 문화재가 산재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는 15만 2,915점으로 이중 43%인 6만6,824점이 일본에 있다.

일본 국민인 가마쿠라 대불이 있는 고덕원(高德院)에 위치한 관월당은 경북군 건

물 일부를 떼어온 것이다. 도쿄 오쿠라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 오층석탑은 호텔창업주 오쿠라 가히치로가 일제시대 반출한 국보급 문화재다.

혜문 스님은 이들 문화재가 도난품이거나 도굴로 수집된 의혹이 있어 이를 도쿄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은 국제박물관협회의

오구라 오층석탑, 가마쿠라 관월당 등 해외반출 문화재 중 43%가 일본반출 대부분 일제시대 반출, 도난 의혹 많아

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혜문 스님은 “국제박물관협회 윤리 강령에는 박물관 소장 유물의 출처 국가가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도난 의혹이 있는 문화재를 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양국 우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8월 30일 일본 간이재판소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혜문 스님. 스님은 34점의 보관 증단을 요청했다.

이다.

모리모토 야스히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한국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반출 경위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학자가 추측한 견해의 하나이며 그 학자조차도 테라우치 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유래 문화재의 태반은 기증 또는 구입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테라우치 총독이 부당한 수단으로 한국 문화재를 약탈 혹은 강탈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것이다.

이에 대해 환수의 법률 조언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된 것”이라며 최근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과 사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일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글 불교개론 <불법총론> 경기도 문화재

<대해보각선사서> 비롯한 불교문화재 4점 지정

19세기 이전 보고 사례가 없는 한글 불교개론서 <불법총론>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 경기도는 불교 관련 문화재 4점과 조선 후기 문화재 8점을 도문화재로 지정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지정된 문화재는 <불법총론>과 <대해보각선사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조돈영서, 정조 어필 비방기, 정조사 조심태어찰첩, 정조사 박종보어찰첩 등이다. 양주 송암사가 소장한 <불법총론>은 불교의 이치와 개념을 금강경 등 여러 경전과 선어록(선사들의 언행)을 담은 기록을 인용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마산 승려 보일이 1880년 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언해본 경전과 달리 희귀본인 불교개론 필사본이다.

함께 지정된 포천 왕산사 대해보각선사서는 송나라 임제종(중국 선종 5가의 한 파) 승려인 대해종고의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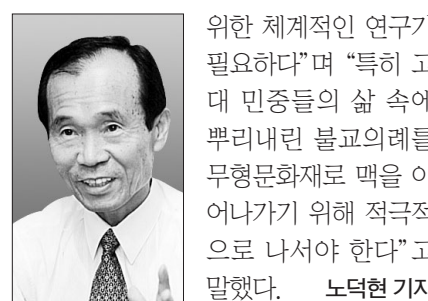
최초의 한글불교개론서 <불법총론>

지정문화재 조사에 참여한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지정된 문화재는 불교문화의 지평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양주 송암사 ‘불법총론’은 순 한글 불서로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는 순 한글 불교개론으로 당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교 이해의 장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며 한글본 불교개론의 가치를 재부여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무형유산, 전승에 관심을”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동산불교대 특강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8월 30일 동산불교대학에서 열린 동산불교대학총동문회 명사초청특강에서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과 같은 유형의 문화재가 불교유산의 전부라 아니며 불교계가 무형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대 민중들의 삶 속에 뿌리내린 불교의례를 무형문화재로 맥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무진장 스님 기리는 연구원 설립된다

서울 조계사와 종로탑골공원 일대에서 50여년 간 전법활동을 펼친 무진장 스님(사진)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연구원이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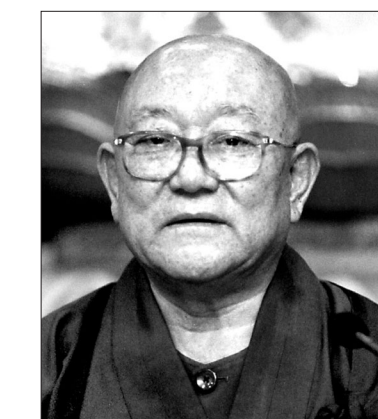
무진장 스님의 상좌인 진관스님은 8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무진장 대종사 열반1주기 추모법회’에서 “무진장 대종사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포교 연구를 펼칠 ‘무진장 불교문화 연구원’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포교학 연구를 담당하며 학술대회와 학술지도 정기적으로 펴낼 예정이다. 또 장차 사업도 진행한다. 연구원 원장은 진관 스님이 맡으며 현재 임원 구성과 장소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진관 스님은 “큰스님께서 실현하려 했던 포교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법회에 참석한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무진장한 사자후는 전후후무하다”며 “조계종 포교의 중인인 스님의 원력을 연구원을 통해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도 “조계사를 지켜온 무진장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내에 ‘무진장 도서



관’을 마련하고 매년 스님을 추모하는 의식을 봉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회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한글 반야심경 봉독, 추모시 낭송 및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진장 스님은 제2대, 4대 조계종 포교 원장을 맡았으며, 서울 탑골공원에서 거지들에게 매일 법문을 펼친 일화가 유명하다.

특히 스님의 청빈한 삶은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사찰과 돈, 승용차 등 일곱 가지가 없다고 해서 ‘칠무스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문화재·상담교수 위촉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8월 25일 본관 총장실에서 9월부터 신설되는 불교학부 문화재전공과 불교사회학부 상담심리학전공 교수를 위촉했다.

불교학부 문화재전공으로는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위촉됐다.

두 스님은 올 2학기부터 불교문화재학, 성보박물관 운영, 금석학 등 문화재 관련 전문 과목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학부 상담심리전공 교수에는 중앙승가대 1, 2호 박사인 지은 스님과 각정 스님이 임명됐다. 두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불교 상담 관련 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60~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화에 주목하는 시대가 왔다”며 “지속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초빙해 스님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직지사 성보박물관장과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지냈으며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각스님은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와 미술사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경북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스님은 2010년 ‘구봉 종림의 선사상 연구’를 주제로 승가대 사상 첫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각정스님은 2011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제1회 템플스테이 논문모집전에서 ‘템플스테이 대중화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2014년도 학술상 공모

<불교평론>은 2014년도 학술상을 공모한다. 2012년까지 실시한 ‘올해의 논문상’을 계승한 ‘불교평론 학술상’의 상금은 500만원이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 공모 및 추천 대상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간행된 학술도서로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저술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고취한 저술 △해당분

야의 연구를 선도한 저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저술 △주요 불교문헌의 치밀한 번역과 주석을 시도한 저술 등을 제시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 해당분야 도서 2부와 요약문(200자 원고지 10매 정도)을 오는 9월 30일까지 불교평론 편집실로 보내면 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9 MG타워 (02)739-5781

보조사상연구원, 9월 20일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20일 서울 법원사 문화강당에서 ‘송광사의 고승 나옹과 제자 무학, 고봉 재조명’을 주제로 제109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옹해근과 송광사’ (이철현, 서울대), ‘여말선초 수선사16국사 고봉과 18주지 무학’ (황인규, 동국대)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발땀 독소 쏙 빠지며 날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기감 체험
	자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기운을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기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강연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가운솔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